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지 등 각종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경 말씀대로 늘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

주 안에서 21년 만의 재회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초청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및 부흥성회에 조직위원으로 함께했던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를 만나 본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기 원했던 소망이 '만민'을 만나게 해 주었다는 스페인 프란시스코 엑스포시도 목사와 미국 조순자 집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811호 2017년 10월 2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허리케인을 잠재운 권능의 역사 미국 '워싱턴 포스트' 지 등 각종 언론에 게재되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7년간의 병고 끝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은 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후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베풀며 만민중앙교회를 세워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미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케냐, 독일 등에서 수십 만, 수백 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연합대성회를 인도하는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되었다.

에이즈 등 각종 불치병, 난치병이 치료되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앓은병이 일어나 걷고 뛰며 귀머거리가 들고 임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임태하는가 하면, 가뭄 중 단비가 내리고 폭우가 멈추는

등 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 재앙의 현장에서 기도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초에는 미국을 공포로 떨게 했던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재록 목사에게 권능의 기도를 요청해 왔다. 그 결과 허리케인 '어마'는 진로가 바뀌고 약화, 소멸되어 미국은 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2016년 10월 초에는 미국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이 목사가 기도해 허리케인 '매튜'가 하루 만에 세력이 약화되고, 2015년 '호아킨', 2011년 '아이린', 2008년 '구스타브' 등 허리케인의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

이 허리케인 '어마'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가 워싱턴 포스트 10월 6일자에 '허리케인 어마, 대한민국의 목회자 이재록 박사의 기도로 소멸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세계적인 유력 신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발행하는 최고 유력지 중 하나로 '뉴욕 타임즈', '월 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일간지로 꼽힌다.

이에 따르면 9월 초 대서양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권능의 목회자'로 알려진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박사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기도받은 직후 세력이 약해지면서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플로리다의 영적외교단체 설립자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의 증언과 함께 "지난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에 예블라가 창궐했을 때, 이재록 박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해 감염자 및 사망자 발생이 중단된 적이 있다."는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 대표 세바스찬 임페토 광고 의원의 멘트도 덧붙여 실렸다.

한편, 이와 관련된 기사가 미국의 기독교통신사인 ANS(어시스트뉴스서비스, www.assistnews.net), 캐나다 소재 유력 기독교신문사인 크리스천텔레그래프(www.christiantelegraph.com), KNS뉴스통신(www.kns.tv)과 크리스찬신문 등 국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41)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들도 원수 마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에 늘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두려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초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약 1:13~15).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시험은 영혼이 잘되게 하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므로 피할 길을 주시니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 2.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쉬운 이유

첫째는, 성령의 주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기도해서 주관받기보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일을 추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진리 가운데 추진하면 형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대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인도받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할 빌미가 없습니다. 혹여 어떤 실수나 외부 요소로 인해 시험이 온다 해도 성령은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알려 주셔서 대비케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자부해도 자신의 의와 틀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리를 백 퍼센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뒤 자신의 의가 대부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음을 절실히 체험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

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고후 10:5).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므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불같이 기도하여 자기 의와 틀을 깨뜨려 나가야 하지요.

둘째는, 성령의 소욕을 좇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정이나 일터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에 영적인 힘이 오지 않으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성령의 소욕을 좇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세상 유혹이 올 때에 뿌리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아 육의 것을 취해 나가며, 다시 구습을 좇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마음의 비진리를 충동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벧전 5:8-9). 어찌하든 의심을 주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태함과 방탕함을 좇아 신앙생활에 열심내지 못하게 하지요. 따라서 원수 마귀 사단의 꾀계에 빠지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 3.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려면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깨어 기도하지 않

은 것을 합리화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은 ‘죄성과 결합한 몸’을 가리키며, 육신이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기에,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잠자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 육신의 소욕이 강해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받은 후에는 불같이 기도하며 순교할 정도로 담대한 사도들이 되었지요.

설령 몸이 연약하다 해도 기도할 마음만 있다면 강건함을 구해서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능히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할 때 성령의 도우심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으며,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이 임해 영감이 밝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을 일만 하게 되고, 혹여 시험이 온다 해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육신이 약해 기도를 못한다거나 기도를 쉬어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구습을 버리고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며 범사에 형통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호흡이 끊어져 결국 죽고 말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참자녀가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만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마음 중심으로 기도할 때 참 평안을 누리고 축복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 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임박해지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겔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제자들이 슬픔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것을 보시면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 영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이지만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이기기 힘든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21년 만의 재회, 가족을 만난 듯 따뜻했고 이재록 박사님의 권능은 이전보다 크고 놀라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만민중앙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예배와 축하행사가 있었다. 국내외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는데 23개국 해외 인사 중에는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에서 온 목회자가 있었다. 21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및 부흥성회’ 시 조직위원으로서 만민의 사역에 대한 감사패를 준비해 한국을 찾은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

- LUT(Latin University of Theology) 신학대학 남미지역 총장
- 플로렌시오 발레라 시 목회자협의회 회장
- 주 아르헨티나 브룬디 명예 영사
- 1996~1997년 이재록 목사 초청 아르헨티나 성회 조직위원



1996년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 ◆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21년 만에 재회하셨으니 감회가 남다르셨군요.

그렇습니다. 1996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재록 박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1년이 지난 지금 박사님의 권능은 더 커졌고, 사역 또한 많은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재록 박사님을 뵈었을 때는 마치 아버지를 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과 사랑이 아버지를 뵈는 듯한 감동으로 밀려왔지요. 마치 가족을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만난 존경하는 목회자이실 뿐 아니라 마치 친 가족을 만난 듯한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지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저는 라틴신학대학 학장이며 남미 분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 총장 마누엘 디헤리노 박사님은 MIS(만민국제신학교)와 상호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 ◆ 만민에 넘쳐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포하시면 무엇이든 이뤄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잉태의 축복이 임하듯, 하나님의 사랑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바벨라 시장과 함께한 이재록 목사(좌)

## ◆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 만민 지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997년 아르헨티나 성회를 준비하면서 이재록 박사님의 스페인어 책자 번역 및 감수, 만민뉴스 감수 등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저는 만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민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달랐지요.

이것이 기반이 되어 약 두 달 전쯤에는 아르헨티나 만민 지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민의 사역과 이재록 박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르헨티나 전국 곳곳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 ◆ 마지막으로 전남 무안단물터에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안단물터에 가서 이재록 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던 물의 힘을 시음해 보니 짜다 못해 매우 썼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신 뒤 변화된 단물은 마시는 순간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샤워할 때 시원하고, 피곤이 싹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특히 저는 영안이 열려 무안단물이 나오는 곳 주변에 반달모양으로 나무보다 큰 천사들이 둘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우리가 있는 곳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양 주위에 무지개가 있었고 태양이 도는 모습도 보았으며, 태양 가운데 하트모양이 있는 것도 보았지요. 또한 태양이 배아가 나뉘듯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것을 보면서 잉태하지 못한 여성들이 무안단물을 마시면 생명력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무안단물의 역사는 재창조의 권능이 담겼다고 확신합니다.



1997년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및 부흥성회

## ◆ 만민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는 잔치에 이재록 박사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하고 싶은 저의 오랜 염원이 2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제게는 큰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 ◆ 신학교 총장으로서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대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때입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산재해 있는 마지막 때에 이재록 박사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설교와 책자에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이 선포하시는 성령의 복음은 진보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에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가치 있는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 주요 프로그램 안내

10월29일~ 11월4일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 만민은 하나
- 아버지의 마음
- 공부 잘하는 비결 9-11
- 믿음을 처방하시니 19-24
- 요한계시록 강해 70-76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3

#### GCN TV 설교

- 육과 영 8-12 (이수진 목사)
- 선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75 (이희선 목사)
- 욕기 강해 28 (신동초 목사)
- 5계명 (정구영 목사)
-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지영 전도사)

#### 예능 프로그램

- 권능 스페셜 20
- 모두 드려요 15
- 옛날 옛적에 시즌2 6
- 내 마음의 찬양 21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4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9
- 마지막 때 17
- 창조와 과학 10

####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3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6

전국 어디서나 **alleg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TV**

##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7년 전,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자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치료했다면 하나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저 또한 권능을 나타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지요.

저는 과연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지, 그 분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즉시로 인터넷을 검색해 만민중앙교회에 접속하였고, 이를 통해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재록 박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민을 향한 저의 기대와 경외심은 더 깊어졌지요. 만민중앙교회에 가서 직접 이재록 박사님을 뵈고 만민의 비전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난 10월 초, 저는 창립 35주년을 맞은 만민중앙교회를 저희 교회 장로님과 함께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사역의 비전들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감명 깊었던 것은 이재록 박사님의 삶, 사랑 그리



프란시스코 엑스포시토 목사  
스페인 마라나타 부흥교회

고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이재록 박사님을 직접 뵈었을 때, 매우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며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큰 권능을 받으셨음에도 겸손하셨고, 다정한 모습이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 35주년을 축하하는 모든 공연에서 느껴지는 수준 높은 영성에 매우 감명을 받았지요. 저는 ‘만민’의 겸손함과 사랑을 체험한 뒤, 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의 사역과 같이 주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사역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만민’은 모든 면에서 영적이면서 또한 강력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계획임을 믿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만민과 저희 사이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이끄심에 계속 순종할 것이며, 앞으로 스페인과 전 유럽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만민과 이 권능의 차원을 알도록 최선을 다해 ‘만민’과 협력할 것입니다.

##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로

2014년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설교 한 편을 듣게 되었는데 ‘지옥’ 설교였습니다.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에 은혜받아 어느 교회 목사님인가 궁금하여 검색해 보니 만민중앙교회였습니다.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는 수백 편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업로드되어 있었지요. 설교를 듣고 난 저는 ‘이렇게 진리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니.’ 감탄하며 계속해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술술 풀어져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저는 축농증이 있어 매년 항생제를 여러 차례 복용해야 했는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치료되는 체험도 하였지요. 당회장님 설교를 듣다 보니 그동안 곤고했던 이유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매니저로서 종업원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깨달았고, 그것을 회개하자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지요.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어 갈수록 일터에도 축복이 임했습니다.

저는 GCN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와 각종 예배는 물론,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당회장님의 설교로 제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며 저는 어디에 가든지 당회장님과 만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 제 삶 전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신앙 모임에서 당회장님의 설교를 프린트하여 읽어보라고 드리면 좋아합니다. 생명의 꿀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신이 나지요.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법도’ 등 당회장님의 신앙서적도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만민의 양 떼인 사실에 더 깊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때문이지요. 뉴스에서는 제가 사는 네이플스 시로 허리케인 ‘어마’가 온다며 피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집 뒤에 운하(육지에 파 놓은 물길)가 있어서 주위에서는 피해야 한다고 권유했지만, 저는 당회장님께서 이미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었기에 지킴받을 것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물이 범람하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저희 집 뒤 운하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서 불과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물이 차올라 배를 타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며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지요.

제가 만일 당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읽고서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내 안의 비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채 인생을 잘못 살았을 것입니다. 만민의 양 떼가 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조순자 집사  
미국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 시 거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세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41)546-1537, 010-2672-0244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결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